

문화체험 · 영어공부

“하와이 캠프 준비 됐어요”

무량사에서 7월 29일부터 21박 22일 김민선 교수 외 원어민이 직접 지도 초중고, 4월 30일까지 40명 선착순

“난 올해를 하와이에서 문화체험하며, 영어를 배운다.”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창간10주년을 맞아 한인 이민 100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무량사 한인문화원에서 7월 29일~8월 19일(21박 22일)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한다.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여름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다피아 캠프의 어학연수는 총 54시간 영어강의와 현장에서 응용하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60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하와이주립대학교 어학연수교육원(Speech department Communication) 김민선 교수를 디렉터(총책임자)로 현지 원어민 강사 3명이 지도한다.

역사문화체험은 하와이 한인 이민의 한이 서린 사탕수수 농장, 폴리네시아 민속촌, 홀라쇼 실수, 하와이왕국 이

올리나 공전 관람이 이뤄진다. 자연체험은 화산의 용출입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빅아일랜드섬을 비롯 남태평양의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원시 밀림과 초원, 해변에서 열대물고기들의 노니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다피아 캠프는 하와이 현지 무량사의 숙식제공에 따라 참가비가 다른 캠프에 비해 60%선이다. 참가비는 250만원(여권 및 비자수수료 별도)이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학부모(3주 참가비 220만원) 등반도 가능하다. 문의 02-722-4162-3 김원우 기자



일정	시간	프로그램	일정	시간	프로그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용)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 이민의 역사와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공전 관람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3일(화)	09시-16시	카할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에이에서 수영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설 탐방
			8월 17일(화)	10시-	출발

월정사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 대회’

상원사까지 약10km 진행 선원 참배등 부대 행사 마련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5월16일 '제1회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걷기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전 10시 30분 오대산 월정사를 출발,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반야교, 상원사 선재능장과 오대산장을 거쳐 상원사까지 약 10km를 걷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원사에서는 간단한 회향식과 함께, 상원사 만화부와 청량선원, 동정각 등에서 사진전 및 회화전, 선원 참배 등의 부대 행사도 열린다.

참가자 제한은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5월16일 오전 9시30분까지 월정사 매표소에서 참가 번호표를 받으면 된다. 월정사는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 티셔츠 등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의는 전화(033-332-6661)나 홈페이지(woljeongsa.org)를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사찰에서 공연 많이 많아 즐기세요”

종교인평화회의 종교시설서 ‘템플공연예술제’ 마련

사찰이나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예술제가 막을 올렸다. 이제는 공연장을 찾지 않고도 가까운 종교시설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종교인평화회의는 제1회 템플공연예술제를 마련, 4월12일 일산 열사사에서 가족극 ‘양덕원 이야기’를 개막하고 7월2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사찰, 성당, 교회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찰 가운데에서는 여섯 개 마곡연에 이어 수원포교당과 능인선원에서 공연이 계속된다. 공연되는 작품은 ‘양덕원 이야기’ 외에 ‘우동 한 그릇’과 어린이 청소년 뮤지컬 ‘토끼와 자라 그 이후’, ‘뮤지컬 하이라이트’ ‘재즈’ 등 모두 다섯 작품이다. (02)736-2250 한명우 기자

진흥원, 대법당 다보원 개원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 3층 대법당이 열린 수행 정진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사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돈구는 4월 8일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해거수원(금강선원 원장)초청 다보원(多寶院)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다보원은 기존 대법당의 불교방송 공개를 기능과 각종 법회, 불교사상 및 문화강좌 등이 열리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최명준 진흥원 사무국장은 “다보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당기능을 활성화 시켜, 기도 및 시민선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2) 703-0108 김원우 기자

나주 무량사 7일 큰법당 낙성

나주 무량사주지 해인은 4월 7일 '큰법당 낙성 및 불멸사 타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임도 스

님 비롯해 관내 사찰스님과 지역 기관장,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주지 해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중장불사를 시작하자 4년 만에 큰법당을 신축하고 ‘평등의 종’을 조성하게 됐다”며 “신도들과 한마음으로 정진해 미타정도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된 큰법당은 24평 규모로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봉안됐다. 또한 법당 옥상에 대형 아미타불을 조성해 사찰 밖에서도 참배하도록 했다. 이준영 기자

봉은사 18일 ‘수행결사’ 회향

기존의 생전수행자를 수행결사로 바꾼 서울 강남 봉은사가 49일 동안 진행된 ‘참살림 수행결사’를 4월 18일 회향한다. 회향식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수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1080배 정진이 진행된다. 앞서 15일에는 한철·화장사약을 비롯해 장기거주·사후 시신거주 서약 등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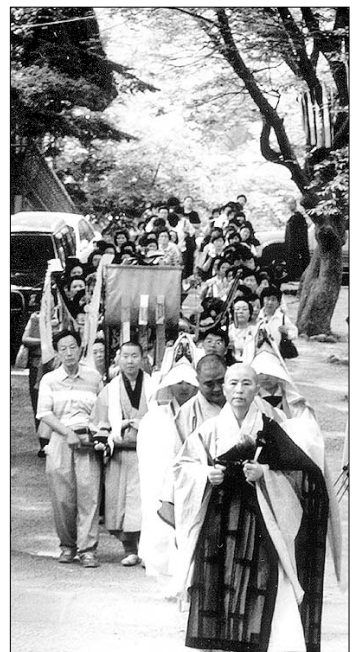


지금, 우리 삶에서는...

서울 진관사

수륙도량 면모 되살린다

4월1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에서는 하루 종일 수륙전도대회 회향식이 열렸다. 여느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불보살과 천도 받는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절차인 ‘시련(侍禱)’으로 시작된 수륙전도대회는 모든 재의식의 끝마무리인 ‘회향 봉송(回向奉送)’이 오후 늦게 끝나면서 마무리됐다.



4월1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시작한 수륙전도대회에서 불보살을 도량에 모셔오는 '시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예로부터 한양 4대 명찰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졌던 진관사. 지금은 거사립화나,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활발해 서울 서북부에서는 제1의 포교도량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진관사가 조선시대에 나라의 수륙재를 담당하던 사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진관사는 지금,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매년 상대한 의식을 거행하던 수륙도량 진관사의 진면목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날 열린 수륙전도대회 회향식은 바로 진관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윤달이 든 해마다 49일간 수륙전도대회를 지내던 진관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륙재 회향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수륙재의 연원과 그 의미를 알리고, 예술성을 부각시켰다.

수륙재는 떠도는 영혼과 혼령들에게 불법을 강설하고 범식을 베풀어 무고한 혼령을 구제하는 불교의식이다. 이날 열린 수륙전도대회 회향식은 바로 진관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윤달이 든 해마다 49일간 수륙전도대회를 지내던 진관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륙재 회향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수륙재의 연원과 그 의미를 알리고, 예술성을 부각시켰다.

의 무용이 곁들여져 하나의 종합예술로 형성화된다.

1963년 이곳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진관 스님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진관사를 복원하고 오늘날의 진관사를 일궈냈다. 하지만 진관 스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륙재를 불교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관 스님은 올해 초 진관사 수륙재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1963년 이후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진관 스님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진관사를 복원하고 오늘날의 진관사를 일궈냈다. 하지만 진관 스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륙재를 불교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관 스님은 올해 초 진관사 수륙재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한양 4대 명찰, 청소년 법회 활발

불교무형문화 전통 계승에 전력

했다. 역사적으로나 불교문화적으로 볼 때 그만큼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진관사 총무 수경 스님은 “진관사 수륙재와 같은 불교무형문화재를 제대로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진관사 수륙재 의식은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詩)적인 내용을 지닌 의식문을 범패(梵唄음악)로 장(唱)하며, 여기에 목탁·목어·북·운판·요령·바라 등이 반주 악기로 사용된다. 또한 의식의 중요한 부분에는 도량제작법, 천수바라, 법고춤 등

문화유산이자 민족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02)359-8410 한명우 기자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 전문병원으로 거듭납니다.

- 큰 스님들을 위해 아늑한 별도의 치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큰 스님들을 시봉하신 불자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무료로 치료하여 드립니다.

■ 크리닉 안내 척추 전문 크리닉 (2004년형 최신의료기) / 관절염 전문 크리닉 Tractizer 척추, 관절 물리치료실 Nerve Stimulator(T.E.N.S), 종합중풍 크리닉 Infra Red / 통증 크리닉 Ultra Sonic Therapy 척추 특수 경락치료 LAPEX - 2000

콘티넨탈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체의학 2004년 수강생 모집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본 평생교육원은 콘티넨탈대학교 의과대학 부설로써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치료와 예방의학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의 이민 기실 분 환영
● 모집인원 : 25명 ● 교육기간 : 15주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6시
● 모집과목 : 대체의학 ● 수료 후 콘티넨탈 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 수여
공부하는 학생들만 먹는 마교한 마교한은 세계적 석학들처럼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두뇌에 좋은 안약입니다. 마교한이 말로 잠자고 있는 80%의 뇌를 130%의 뇌로 가동시키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교한은 뇌 신경세포에 좋은 성분만을 공급하는 안약입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은 밤낮으로 공부하는 피로가 늘 겹치고,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몸 전체의 신진대사기능과 뇌 신경세포까지 약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교한은 정신의 안정과 체력을 돕는 작용으로 지구력을 증가시켜 수험생의 대뇌에 전체적 기억력, 임기력, 논리력, 수리력 등으로 뇌를 감미롭게 발달시키는 환약입니다.

마교한의원 ·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 시외복기법민 한국경로복지재단 · 선불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02)587-0001 동양약학사 성병 양행